

## UN평화문화특구 조례안 등 8건 의결

###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로 2월 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 2월 13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끝나무지현 복합센터 변경 건립)」은 면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나머지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다.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수정)가결된 7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의결됐다. 이 날 박미순 의원은 ‘신종 코로나감염증의 극복을 위해’, 고선화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전선지중화 추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 법령명 변경과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필요로 관련조항을 정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9.6.5.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관련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의 투명성 확보 등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활동 및 행사 시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를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자원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 대학생에 대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코로나19 대응에 남구의회도 힘 보태



### 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회

지난 1월 30일 남구보건소(보건소장 허복)는 남구의회 의원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한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수칙을 전파하며 관내 현황을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남구의회 전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험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의료진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대응 남구보건소 격려

지난 2월 12일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남구 보건소(보건소장 허복)를 방문하여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텐트, 음압대기버스 등이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 5분 자유발언

###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극복을 위해



박 미 순 의원  
(용호1동)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로 남구도 축제와 행사 연기·취소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은 초기대응 실패로 사망자·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산 추세가 이어져 전 세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발전에도 국가에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종코로나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되며 백

신,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고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 본부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에는 손세정제 비치, 예방활동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아동과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므로 예산 확보하여 복지·보육시설 및 수급자에게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취약계층 방역역량태전수조사로 안전사고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접종, 소독 등 상시 조치활동 필요성입니다. 위기별 단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등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소독, 방역강화와 사전 예방접종과 전염 단계별 이용 한시적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새마을 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방역체계 구축과 감염활동 전개로 전염병 예방에 상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질병신고를 근간으로 하는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으로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주민의 정보부재에 따른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최근 대학생이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로 확진자 동선을 알 수 있는

「코로나 맵·알리미」 앱을 공개하여 5일만에 조회수가 800만에 이른 점은 시사한 바가 큼니다. 넷째, 보건교육과 질병 예방 홍보입니다. 감염병 발병과 병증의 조기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과 질병 예방수칙 실천은 중요입니다. 부산시는 버스·지하철 방역, 남구청은 마을버스 손소독제 비치·소독 등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남구 자가격리자 등 15명에 대한 동선 공지 등도 고려해야 하며 보건소·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배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합니다.

### 도시재생사업 연계한 전선지중화 추진



고 선 화 의원  
(용호2·3·4동)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약 25%가 노후 전선을 포함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나 명확한 교제 및 수리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국 230여개 사업소를 통해 월 1회 이상 육안검사와 연 1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선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전국 약 940만개의 전선주와 도심속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의 정밀한 점검은 무리인 상황이며 IPTV 등 통신업계의 무분별한 통신선 설

치 또한 심각합니다. 「배전설비 공개업무 처리지침」에는 한전에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통신선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업체는 기존 통신선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선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전선주에 너저분하게 얽혀있는 전선, 통신선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과 화재위험 노출, 불법 광고물의 전봇대는 도심속 골칫거리이며 전선주 인근은 담배꽂초 등 불법 쓰레기 투기의 거점 포인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전도시 구현이라는 남구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전선지중화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기 설치된 배전 선로를 땅

속에 묻어 연결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전력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시행합니다. 남구는 2009년 대학로 문화거리, 2017년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시 전선지중화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전봇대와 전선이 없어져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 통행 불편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선 지중화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

지만 도시재생사업 연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전의 지자체 부담금 장기보합상환제도를 활용,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부담은 완화될 것입니다. 특히,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인 및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와 예산확보, 한전 및 이해관계자 협의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남구 지역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중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의원 발의

제28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활동이 있었다. 김현미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활동 및 행사 시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의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허미향 의원(대표발의) 등 남구의회 전 의원은 남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동제의 보전 및 지원계획 수

김현미 의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허미향 의원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구슬 의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김철현 의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구의회 전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박구슬 의원(대표발의) 외 9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내 거주 대학생에 대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꾀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의 방법·모집·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행정체험연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철현 의원(대표발의) 등 남

-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본회의장
- 방청대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